

황제주 ‘에코프로’ 급락… 개미들 주가방어에도 공매도 몰려

2차전지株 변동성 확대 시기 진입
에코프로 주가 이달에만 18.7% ↓
기관·外人 각 65억·1210억 순매도
개인투자자 홀로 1184억 순매수

코스닥시장 사상 5번째 ‘황제주’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8월들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방어에도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주에는 이틀 연속 장중 100만원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2차전지주의 투자 메리트가 떨어짐에 따라 변동성 확대 시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달에만 18.7% 급락했다. 특히 전장보다는 4.19% 내렸던 7월 종가는 100만6000원으로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종가기준 100만원대에 근접했다.

에코프로는 연초 11만원으로 시작했지만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으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가파른 급성장에 증권가에서는 비상식

적인 과열 구간이라고 평가하며 분석에 손을 뗐던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2차전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관련 업종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2차전지 업종 주가는 올해 초부터 양극대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주가 과열 양상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단기간 급등한 만큼 주가 조정에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 급락했던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5억, 1210억씩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홀로 1184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방어하는 양상이었다. 다만 장중 100만원선을 하회하기도 했던 7월에는 개인이 홀로 327억을 팔아치웠다. 이날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에코프로의 공매

도 잔고도 급증했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3986억원이었다. 전날 공매도 잔고 83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50% 수준의 공매도가 몰린 것이다. 이어 다음날이었던 이달 1일 공매도 거래대금도 1094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없는 주식을 파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자 전략이다. 최근 2차전지주 관련 호재성이 떨어졌을 뿐더러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하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달은 예고됐던 2차전지 업황의 부진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주가 레벨이 최근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기록 에쓰오일 주가 6.85% 상승

metro 관심종목

정제마진 상승해 수익성 높아지고
재고자산 가치 올라 재무구조 좋아져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쓰오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 축소 우려로 에쓰오일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유 업종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에쓰오일의 주가는 이달 들어 6.85% 상승하며 금호석유(3.53%), 롯데케미칼(1.98%) 등 다른 석유화학주들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상승에는 국제유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통상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제마진’이 상승해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유 재고자산 가치도 오르면서 재무구조도 좋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12.7달러로 지난 7월(6.6달러) 대비 두 배 뛰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것으로, 보통 배럴당 5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다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최고온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와 정제마진이 연이어 상승하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름철 이동수요 증가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원유와 정유제품 재고는 계속 감소 중이고 여기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유가 반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공급부족 기조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함에 따라 에쓰오일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은 에쓰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을 7838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유부문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다. 정유부문 예상 이익은 4833억원으로 예상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에쓰오일이 2분기는 부진하지만, 3분기에는 1년래 영업이익이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와 내년 에쓰오일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3%, 10% 상향 조정했다. 최고온 연구원은 “지금의 석유 시장은 공급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화석연료 산업은 유가가 오르더라도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초 미국의 석유 시추 건수는 연초 대비 100건 이상 감소했고, 과거와 달리 OPEC 플러스(OPEC+) 역시 감산 기조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유업계도 친환경 신사업 영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정제 능력은 정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것인 전망에 증권사들은 에쓰오일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에쓰오일의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다. 유안타증권은 에쓰오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원관희 기자 wkh@



‘더샵 소양스타리버’ 투시도.

청약 경쟁률 높은 지역 수요·미래가치 검증 돼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청약 성적이 양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단지는 수요와 미래가치가 검증된 것이 특징이다.

10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평균 85.39대 1을 기록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다. 이어 ▲대전광역시 서구 68.67대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2.31대 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8.36대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7.75대 1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경우 110가구 모집에 9393건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쾌적하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역민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10월 강원 춘천시 소양로2가 일원에서 ‘더샵 소양스타리버’ 39~112㎡, 1039가구 중 85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 중앙고속도로 춘천IC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수월하다. 단지 주변으로는 북한강, 봉의산, 춘천평화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서울 아파트값 16주째 올라… 상승폭은 위축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이어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올랐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16주 연속 오름세다. 8월 셋째 주(0.14%)와 8월 넷째 주(0.13%)에 이어 이번주까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북구(0.15%→0.14%)가 길음·정릉동, 용산구(0.19%→0.17%)는 도원·이촌동 주요 단지, 동대문구(0.20%→0.17%)는 장안·전농동 대단지, 광진구(0.12%→0.13%)는 자양·구의동 신축 위주로 상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상승거래 이후 매물 가격에 대한 상향 조정이 유지되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하락했다. 9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0으로 전주(89.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25주째 오르던 상승세가 멈추고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환기자 kdh@

하이투자증권, ‘하이 소액국채 랩’ 추천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 추구

하이투자증권은 소액국채 거래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하이 소액국채 랩’을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산의 대부분을 국민주택 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한국의 채무불이행 선언 전까지는 원금이 보장돼 안정성이 매우 높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채권 매수가 가능한 소액채권매매제도의 특징을 활용해 국민주택 1종 채권을 당일 신고가

격에 매수하고, 익일 시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매매차익 확보를 추구한다. 채권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국채 매수금액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은 전액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환매 조건부채권(RP) 등으로 운용되며, 고객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중도 수수료 없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인당 1000만원이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상품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디지털 컨택센터로 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9월 둘째주, 전국 6개 단지 262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인천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등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624가구(일반분양 23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계양시 효성동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경기 수원시 오목전동 ‘오목천역더리브’,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안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보주택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브’,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

(A블록 5개동 777가구, B블록 4개동 566가구)와 전용면적 53~82㎡, 오피스텔 97실로 조성된다. 단지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관공서 등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대연4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총 1384가구 규모의 후분양 아파트로, 이중 전용면적 59~114㎡, 3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이 위치했다. 주변에는 대학가 상권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김대환 기자